

## 1 개요

차사본풀이는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차사의 내력을 담은 무속신화이다. 과양셍이 각시의 세 아들이 과거급제함과 동시에 죽자 강림은 김치원의 명령을 받아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을 청하여 과양셍이 각시가 재물을 탐하여 버무왕의 세 아들을 죽인 사실을 밝혀 처벌하게 하고 자신은 염라대왕에게 발탁되어 차사가 되었다.

## 2 내용

옛날 동경국에 버무왕이 살았다. 아들 7형제를 낳았는데 위로 4형제는 잘 살았으나 아래로 삼형제는 단명할 운명이었다. 동개남 은중절 대사가 그 사정을 알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하여 삼형제를 데려다가 절을 지키게 하여 명을 이어주라고 일렀다. 버무왕은 시주 받으러 온 중의 말에 따라 삼형제를 절에 보내어 목숨을 부지하기로 하였다.

절에서 생활하던 버무왕 삼형제는 고향이 그리워져 잠시 말미를 얻어 고향을 찾아가다가 재물을 탐한 과양셍이 각시에게 살해당하고 시체는 연못에 버려지고 말았다. 버무왕 삼형제는 꽃으로 화하여 나타나니 과양셍이 각시가 곱다고 집으로 가지고 가서 걸어두지 만 오갈 때마다 걸리적거린다고 화로에 불태워 버렸다. 꽃은 구슬로 화하는데 과양셍이 각시가 입에 물고 놀리다가 그만 삼키게 되자 그것이 잉태로 이어졌다. 과양셍이 각시는 아들 세 쌍둥이를 낳았다. 세 아들은 자라서 과거에 동방급제하였으나 귀가하자마자 동시에 급사하였다.

과양셍이 각시는 김치원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김치원이 해결하지 못하자 과양셍이 각시는 온갖 욕을 해대었다. 난처해진 김치원은 똑똑하고 능력있는 강림에게 누명을 씌워 염라대왕을 불잡아 오라고 시켰다. 속절없이 죽게 된 강림은 혼인한 뒤에 계집질하느라고 돌아보지도 않던 큰각시에게로 갔다. 큰각시는 조왕과 문전에 정성을 다하여 기원하고 김치원에게 올바른 저승문서를 받게 하여 강림을 저승으로 보내었다.

강림은 조왕과 문전신의 도움을 받으며 우여곡절 끝에 저승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염라대왕이 주술로 변신하며 피하는 것을 불잡아 이승으로 가서 돋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이승에 이르러 보니 자신의 첫 제삿날이었다. 오랜만에 강림 부부는 함께 잠을 자다가 이웃 영감의 고발로 동헌으로 불잡혀 가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약속대로 나타난 염라대왕은 과양셍이 각시가 버무왕의 세 아들을 죽인 사실을 밝히고, 버무왕 세 아들은 환

생시키고 과양셍이 각시의 사지를 찢어 죽였다.

염라대왕은 강림을 데리고 가서 차사의 일을 맡겼다. 차사의 일을 맡은 강림은 처음에 적베지를 까마귀에게 잘못 맡겨 아무나 저승으로 데려가는 바람에 질서가 엉망이 되고 말았다. 강림은 다시 동방삭을 잡아오라는 임무를 맡았다. 강림은 숯 씻는 모양을 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드디어 동방삭을 잡아가는 데 성공하였다.

### ③ 특징

안사인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이승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끝내 저승 염라왕을 불러다가 처리한다는 전승은 다른 지방에도 있다.

차사본풀이는 이러한 공통의 전승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에서 발전시킨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끝에 동방삭 전승이 덧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④ 핵심어

버무왕, 7형제, 삼형제, 꽃, 구슬, 과거, 과양셍이 각시, 김치원, 염라대왕, 조왕, 문전, 저승, 까마귀, 적베지, 차사, 동방삭

### ⑤ 원전 서지사항

차사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⑥ 관련 자료